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당신이 죽는 날

그 누구도 지켜줄 자가 없으니

스스로를 의지해 갈 준비를 하라.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주변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당신과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재벌일지라도 죽을 때에는 1원도 가져갈 수 없고, 가장 힘이 센 장군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명령을 내린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이가 그렇듯 그도 행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몸을 떠나고, 중음계를 떠돌게 됩니다. 중음신이 됩니다. 당신은 음지에서 상실감과 절망감에 젖어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환영들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비록 그 환영은 당신 마음의 투영 이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바르도(중음)상태에서의 환영은 실제 상황처럼 무섭게 다가 옵니다.

이 상황에서 오직 편안할 수 있는 원천은 당신이 해왔던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국가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유로 늘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수행을 해서 죽음에 대처하십시오. 수행을 하는 것은 다가올 생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며 미래의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관음좌상 제자리 찾기 '한마음'

제자리봉안위, 21일 출범식... 환수운동 본격화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좌상을 제자리로 봉안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공동대표 주경, 도신, 정범 등, 이하 봉안위)는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간 서산시민들의 추진위원회로 운동을 전개했던 봉안위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조직을 구성하고 불상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간다.

봉안위에는 정치, 언론, 지자체, 지역불교계의 명망있는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봉안위 고문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지도위원에는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과 성완종, 이이재, 홍영표, 이원욱 국회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등이 참여했다. 공동대표는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 수덕사 재무부장 정범 스님과 김원웅 前국회외교통상위원장, 김경임 前 튀니지대사, 연승용 前 문화재청 정책국장이다. 이날 봉안위 발족식에서 수덕사 주지 지

운 스님은 "불상은 돌과 쇠붙이에 원력과 영원, 혼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불상은 제자리에 있을 때 더욱 그 의미가 빛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종단, 교구본사, 지역 사회가 서산 부석사 관음좌

정치권, 학계, 지역불교 등

유명인사 봉안위 대거 참여

약탈 가능성 증명에 최선

갈등 아닌 교류의 계기로

일간론 왜곡보도엔 '아쉬움'

상의 반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며 "이 같은 국민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불상이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상 환수를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도 약속했다. 지도위원으로 참석한 성완종 국회의원은 "이제는 정부 주도로 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는 3월 21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환수운동에 들어갔다.

학적 조사를 통해 불상의 부당한 반출을 입증하고 협상을 통해 반환을 이끌어야 한다. 국회도 정부와 함께 불상을 제자리로 봉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족식에서는 3월 14~15일 이뤄진 일본 대마도 관음사 방문에 대한 결과보고도 이뤄졌다. 봉안위 측은 현재 관음사가 무인(無人) 사찰로 현지 정부화체인 서산 부석사 불상을 봉안할 자격이 없으며, 불상의 설명문도 오류가 많아 보관 관리에 허술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언론의 과도한 취재와 왜곡 보도로 진의를 전할 수가 없었다고 아쉬움

을 전했다.

향후 봉안위는 부석사 불상의 약탈 가능성과 한국 문화재 수탈사 등을 조명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 내 우호 여론과 관계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동집행위원장 원우 스님(부석사 총무국장)은 "현재 일본 관음사 측은 '불상을 반환한 후 소유권을 논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세속의 잣대가 아닌 같은 불제자로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불상 환수를 놓고 갈등보다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원 기자

"北 도발 멈추면 인도적 지원 고려해달라"

7대 종교 지도자, 박 대통령과 첫 오찬서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지도자와 첫 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북한의 핵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비판하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온

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도 "북한의 핵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종교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신중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9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첫 회동을 가졌다. 사진은 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청와대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7월 20일 이전 실시

총회, 총무원장선거법 등 개정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 선거가 7월 20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이다.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도산)는 3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11차 임시총회를 열고 총무원장선거법을 비롯한 총무원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호법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임기만료 2개월 전부터 하도록 했다. 이에 선거는 현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임기만료(9월 20일) 2개월 전인 7월 20일 이전에 시행된다. 총무원장 선거권자도 늘

어났다. 기존에는 중앙총회의원과 총무원장선거인단만선거권을 갖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전국시도교구 총무원장 및 본산급 주지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총무원장 후보자는 후보등록과 동시에 선거일 30일 전까지 종단의 모든 중무직에서 사퇴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총무원장의 결위 혹은 유고로 인해 시행된 선거로 당선된 총무원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시작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종 선거에 임무보할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에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했다. 김주원 기자

군종교구, 첫 비구니 군승 설명회

3월 20일 동학사에서

조계종 군종교구가 3월 20일 공주 동학사 강원을 찾아 '비구니 스님 군승 파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교구장 자광 스님이 직접 나서 비구니 학인 스님 60여 명을 대상으로 군승 파송의 필요성과 임관 과정

을 설명했다.

군승 파송 자격은 장교로 임관하는 해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인 조계종 사미니계 수지자로 4년제 대학졸업자이어야 한다. 군종교구는 문문사 등 비구니 사찰과 동국대, 승가대의 비구니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속 개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金戒剛檀 보살계산림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戒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계사년 금강계단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입 재 2557년 4월 14일(음 3. 5) 일요일
- ▶ 회 향 2557년 4월 16일(음 3. 7) 화요일
- ▶ 장 소 통도사 금강계단
- ▶ 전개 대화상 중산 혜남

- 동 참 금 : 5만원(새마을금고 : 6269-09-005031-0 예금주 : 통도사)
- 문의 및 접수처 : 통도사 종무소 055)382-7182, 화엄전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 각 말사(암) 종무소
- 차량안내 : 부산 온천장 지하철역 오전 8시 ~ 9시

靈鷲巖林 通度寺 주지 원산 도명 합장